

MB정부 3년

정부 100대 요직·공기업, 준정부기관장 출신지 분석해보니

청와대 참모 64명중 영남 24명 호남 6명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제기됐던 영남 편중 인사 논란이 3년이 지난 지금 까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장·차관과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출신지 분석 결과 영남 출신은 크게 약진한 반면 호남 인맥은 소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이명박 정부 100대 핵심 요직 출신 지역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27명, 부산·울산·경남은 14명 등 총 41명으로 영남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은 4명, 전북 8명 등 호남 출신은 총 12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또한, 85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수장들의 출신지 분석에서도 대구·경북이 19명, 부산·울산·경남은 17명으로 영남 출신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9명, 전북은 단 한 사람도 없어 호남 출신은 전체의 1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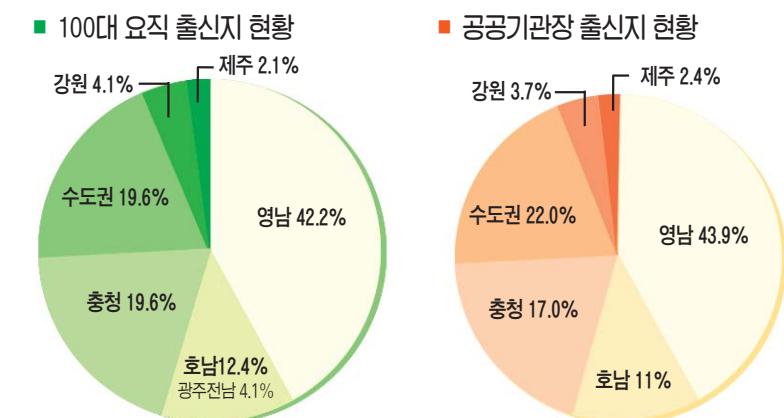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영남 출신은 크게 약진한 반면, 호남 출신은 상대적

으로 소외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등 요직의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 비율은 각각 30% 중반과 20% 중반대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장 출신 지역도 영남이 30% 중후반대를, 호남은 20%대 초반을 유지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장의 영남 편중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김준규 검찰총장(서울)을 제외하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경북), 이현동 국세청장(경북), 조현오 경찰청장(부산)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도 호남 출신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성을 더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영남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재계의 호남 출신 임원들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정설"이라며 "글로벌 경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권력에 민감한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부 100대 요직 인사 현황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출신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55	경기	경동고
정책실장	백봉호	55	충남	남성고
시행통합수석	박인주	61	경북	경복고
민정수석	권재진	58	대구	경북고
홍보수석	홍상표	54	충북	휘문고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59	경남	동이고
경제수석	김대기	55	서울	경기고
정무수석	정진석	51	충남	성동고
고용복지수석	진영근	54	전북	경기고
교육문화수석	진동섭	59	전북	제물포고
총무기획관	김백준	71	전북	남성고
인사기획관	공석			
미래전략기획관	유명희	57	서울	이화여고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동우	57	경북	경주고
특임장관	이재우	66	경북	영양고
경호처장	김인종	66	제주	대정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장	김민수	66	경남	경남고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51	경북	한성고
국무총리	김형식	63	전남	광주제일고
국무총리실장	임채민	53	서울	서울고
교육과학기술부총장관	이주호	50	대구	청구고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김치동	56	부산	동래고
기획재정부정관	윤증현	65	경남	서울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박철규	54	경북	경주고
기재부 세제실장	주영섭	54	전북	고창고
기재부 예산실장	김동연	54	충남	덕수상고
외교부 통상부장관	김성환	58	서울	경기고
외교통상부상무부장관	김종훈	58	대구	경북시대부고
외통부 기획조정실장	전종렬	57	경북	경주고
주미내사	한덕수	62	전북	경기고
주임대사	권현현	64	경남	경남고
법무부	류우익	61	경북	상주고
국방부부총장관	김관진	62	전북	서울고
합참의장	함민구	60	충북	청주고
육군참모총장	김상기	59	경북	동지상고
기무사령관	배득식	58	경북	영남고
방무정장	김영후	60	전남	문태고
방위사업청장	공석			
지식경제부총장관	최종경	55	경기	경기고
지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재훈	51	강원	용문고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김경원	53	경북	경북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	김경식	54	충남	경기고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조석	54	전북	전주고
법무부정관	이귀남	60	전남	인창고
법무부 법무실장	한명관	52	충남	성동고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49	경북	경북고
행정안전부정관	맹정규	65	서울	경북고
행안부 인사실장	신필언	54	경남	동아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박천우	52	충남	용신고
국토해양부정관	정해동	63	충남	청양농고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정대삼	54	전북	증평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비선우	50	부산	동래고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김경식	51	대구	성광고
통일부정관	한영택	57	제주	제주제일고
통일부 기조실장	김호년	53	충북	고려고
문화체육관광부정관	정병국	53	경기	서리고
보건복지기족부정관	진수희	55	대전	대전여고
고용노동부정관	박재완	56	경남	부산고
환경부정관	이민의	65	전남	광주제일고
여성가족부정관	백희영	61	서울	경기여고
농림수산식품부정관	유정복	54	인천	제물포고
감시원장	공석			
감시원 사무총장	정창영	57	대구	경북고
한국은행 총재	김종수	64	서울	경기고
금융위원회장	김석동	58	부산	경기고
금융위기획조정관	정지원	49	부산	부산대동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고승범	49	서울	경북고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정운보	50	경북	대일고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63	경북	대창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	정연수	50	경남	성광고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김수봉	53	서울	배문고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	주재상	55	강원	경기고
공정거래위원회장	김동수	56	충남	덕수상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지철호	50	충남	남강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재준	50	서울	연창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신영선	50	서울	우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74	경북	대륜고
국기정보원장	원세훈	60	경북	서울고
국정원 1차장	김숙	59	인천	제물포고
국정원 2차장	박성도	64	경기	동인천고
국정원 3차장	김남수	54	강원	대일고
국정원 기조실장	목영만	52	대전	대전고
검찰총장	김준규	56	서울	경기고
대검 출판부장	김홍일	55	충남	예산고
대검 공안부장	신중대	51	경북	대일고
서울중앙지검장	노학군	54	경북	대경고
서울지검 3차장	윤길근	57	충북	청주고
경찰청장	조현오	56	부산	부산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성규	56	경북	문경고
경찰청 정보국장	이성규	56	경북	문경고
국세청장	이현동	55	경북	경북고
국세청 조사국장	김연근	51	경북	선린상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제갈경배	51	경북	성광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병국	54	충남	충남고
서울지방세정 조사국장	임희수	50	경북	대구고
관세청장	윤영선	55	충남	서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연홍	56	경기	경북고
조달청장	노대래	55	충남	서울고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56	경북	신일고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55	부산	경기여고



MB정부 3년

으로 소외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등 요직의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 비율은 각각 30% 중반과 20% 중반대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장 출신 지역도 영남이 30% 중후반대를, 호남은 20%대 초반을 유지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장의 영남 편중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김준규 검찰총장(서울)을 제외하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경북), 이현동 국세청장(경북), 조현오 경찰청장(부산)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도 호남 출신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른 영향이 크다"며 "국제화 시대에 아직도 편중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 고 말했다.

Pulmuone

풀무원과 함께하실 '성공 파트너'를 모십니다!



26년 전통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방문판매의名家 Pulmuone
풀무원과 함께할 창업후보자를 모십니다.

[풀무원건강생활 창업후보자 모집]



대상지역

전국지역